

국힘 당권 주자들 “호남 표심 잡자” 적극 구애

윤상현 “광주에 제2당사 신설”
한동훈 “호남 첫 청년정치학교”
나경원 “AI·생명산업 거점 육성”
원희룡 “화정동 붕괴사고 수습”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8일 광주에서 열렸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혁신을 이끌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저마다 지역 현안에 맞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윤상현·한동훈·나경원·원희룡 후보(당 결정 순) 등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자들은 호남을 시작으로, 향후 5차례에 걸쳐 지방 순회 일정을 진행한다.

전당대회 중 가장 많은 당대표가 출마한 만큼 후보자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했다. 4명의 표가 분산되면서 ‘캐스팅보트’인 호남·제주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적극적인 구애 노력도 보였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윤상현 후보는 호남의 정치적 심판으로 지난 총선 궤멸



윤상현(왼쪽부터),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적 참패를 당했다고 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참패였고 이후 당은 책임지는 사람도 어떤 변화도 없다”며 “이기는 정당 만들고 싶다. 윤심이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그게 윤심인 정당을 만들고 싶다. ‘나주 명예 시민 윤상현’ 꼴찌의 기록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시도당에 정치아카데미 신설 △여의도연구원 구조개혁 △민생위원회 출범 △광주 제2당사 신설 등을 공약했다. 그는 “광주에 제2당사를 만들어 매 주 월요일은 호남 전 지역을 다니며 민생

을 듣겠다”며 “경제발전을 위해 ‘호남경제특별위’를 열어 다시 한번 호남의 믿음을 얻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 힘에는 오직 한 계파만 있을 것이다. 바로 ‘친국’ (친국가·친국민·친국민의힘)”이라

며 “상호 존중하는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 구태 정치에 물들지 않고, 피하지 않고 전쟁 하듯이 변화하겠다”고 힘을 쥐었다.

한 후보는 △호남 첫 청년정치학교 설립 △정책제안 시스템 상시화 △여의도연구원 재편 등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 정치·경제를 우상향 시키겠다. 이곳에 정치학교가 없더라.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 첫 청년정치학교를 호남에 열겠다”며 “호남서 훈련받은 청년 정치인들이 당과 보수의 승리, 지역을 위해 뛰게 하겠다. 총장으로 자영업자 등을 만나 자랑스러운 호남의 번영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선거 때만 되면 호남 민심을 얻겠다며 말만 번지르르게 했지 정치 인물 하나 키워준 적 없다”며 “호남을 잘 아는 사람, 호남에서 밭 갈고 소 키운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정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광주 국가 AI 혁신 거점 △전남 농수축산업 미래 생명산업 △전북 이차전지·바이오 산업 선도지역 △제주 디지털 세대 맞춤형 관광산업 중심지 등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2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재정 총력 대응”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출생 대응 등 공동성명서 채택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협력

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수도권 1극체제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김영록 도지사의 해외 일정으로 박창환 경제부지사가 대리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 협력과제 8개, 지역균형발전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공동 협력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과제는 동서교류와 남부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취업자의 51%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총수출의 72%가 몰려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며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부의 임무지만 세금정책 결정 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